

전 남

# 섬·산간지역 '스마트 스쿨' 도입

### 초·중 8개 학교에 갤럭시 탭·전자칠판 설치

### 전남도·삼성전자 업무협약 ... 학습환경 개선

전남지역 도서·산간지역 학교에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를 수업에 활용하는 '스마트 스쿨'이 도입돼 도·농간 교육정보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지역적 제약으로 최신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산간 지역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전남도교육청, 삼성전자와 '스마트 스쿨'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신안·장흥 등 8개 학교에 갤럭시 탭 580여대와 전자칠판 26대, 교육용 프로그램 등 13억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무상으로 지원해 '스마트 스쿨'을 설치한다.

스마트스쿨 시설 학교는 신안 비금동초교·도초초교, 장흥 명덕초교, 담양 고서초교, 완도 노화초교, 나주 봉

황중, 목포 석현초·청호중 등 8개교다.

삼성전자는 또 '삼성 스마트스쿨 솔루션'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사 전문가를 파견해 기기 활용교육을 실시하고 8개 학교의 평가 결과에 따라 스마트 스쿨 확대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스마트 스쿨'이란 과거 칠판과 분필, 나무 책상이라는 전통적 교실에서 벗어나 갤럭시 탭과 미디어 솔루션 교육용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학생과 교사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1대1 교육을 말한다.

전남도는 스마트 스쿨 운영을 통해 다양한 학습콘텐츠를 활용한 최신교육으로 도서·산간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도시 아이들과 같은 풍부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어 교육 수준



박준영 전남지사(가운데)와 김원찬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왼쪽), 원기찬 삼성전자 사회봉사단장이 13일 스마트 스쿨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제 도서 산간 지역 학생들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최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며 "앞으로 국제화사회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유치원생들의 광복절 태극기 사랑

나주북초등학교 유치원생들이 14일 전남도청에 내걸린 대형 태극기를 배경으로 광복절을 기리는 태극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청 제공>

### 항일의 섬 소안도 태극기 마을 지정

제67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일제 강점기 항일 운동의 성지인 완도군 소안도에 태극기 마을이 탄생했다.

완도군은 14일 "소안 배달 청년회 사건과 당사도 등대 습격사건 등 일제시대 치열한 항일운동을 전개했던 소안도 선열들을 추모하기 위해 북암리를 '365일 나라 사랑 국기계양 태극기 마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안면 북암리 35가구 주민들은 8·15광복절을 맞아 국기 계양식을 갖고 연중 태극기를 게양할 계획이다.

완도군은 북암리를 시작으로 14개 마을을 365일 태극기 마을로 조성하기 위해 주민 결의대회 등을 가질 예정이다. 완도군 심만섭 소안면장은 "나라 사랑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완도 소안면의 태극기 거리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 해남생산 우리밀 4137t '밀다원' 통해 전량 수매

### '밀다원' 통해 전량 수매

해남군은 지역에서 생산된 우리 밀 4137t을 ㈜밀다원 등을 통해 전량 수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체 물량 중 ㈜밀다원에서 3300t, 나머지 837t은 한국우리밀농협과 협의를 통해 수매한다.

해남군은 16일부터 22일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1등 3만6000원, 2등 3만4000원의 가격으로 수매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건의 등을 통해 올 생산량 전량을 수매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우리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시범포 확대와 친환경자재를 지원하고 수매업체의 다변화를 통해 식재면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 '노후 농업기반시설 방치, 국가재앙...' 토론회

### 농어촌공사 17일 영암서 ... 개선방안 마련 국정에 반영

한국농어촌공사는 17일 오후 2시 영암군청소년수련관에서 '노후 농업기반시설 방치, 국가재앙 부른다'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영암군과 민주통합당 황주홍의원(장흥·강진·영암)이 공동개최하고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건국대 김선주교수의 사회로 윤광식 전남대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농식품부 정황근 농업정책국장, 한국농어촌공사 방한오 이사,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어 장흥과 강진, 영암군 농업기

반시설 담당자의 현황설명과 군 이장단과 연합회장 등 농민대표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정부와 농어촌공사에 바란다' 순서가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황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토대로 농업기반

설 노후화 및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뒷받침할 법령개정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수자원 환경변화에 대비해 농업기반시설의 치수·이수 능력 증대에 대한 해결방안을 주력 핵심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이라며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한 법규적인 관심이 모아져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서 토론회 개최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전 북

### 군산 이틀 새 400mm 물폭탄

## 시민들 우수저류조 사업 능력 '분통'

### 예산 탓 공사 연기 ... "계획대로 했다면 피해 줄었을 것"

기록적인 폭우로 군산지역 일대가 큰 피해를 본 가운데 저지대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중인 군산시의 '우수저류조 설치사업'이 지지부진해 능력증대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군산시는 상습침수 지역인 월명동과 나운동 일대의 항구적인 수해방지를 위해 '우수저류조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예산부족과 토지 매입 등의 문제에 부딪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100~200mm의 비만 와도 상가와 주택가 지하 등에 물이 차는 등 고질적인 침수지역이다.

시는 이들 지역의 물난리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우수저류조를 설치하기로 하고 예산확보와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올해 월명동과 나

운동에 이들 각각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정작 피해규모가 더 큰 나운동의 경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내년 이후로 공사가 연기된 상태다.

피해 지역의 주민들은 "애초 계획을 위해 '우수저류조 사업'이 진행됐다면 이번 폭우피해를 크게 줄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시는 '100억원이 넘는 방재 공사는 1년에 한 곳에서만 진행해야 한다'는 소방방재청의 내부방침 때문에 두 곳의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월명동 우수저류조 사업은 72억원, 나운동 저류조 사업은 140억원으로 일단 비용이 적게 드는 곳부터

추진하기로 했었다.

군산시의 한 관계자는 "우수저류조 설치 사업비는 방재청이 50%가량을 부담하기 때문에 방재청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나마 기대했던 월명동 우수저류조 설치사업 역시 연내 착공여부가 불투명하다. 시는 지난 6월중 시설공사 발주해 내년 우기철 이전에 공사를 끝낼 방침이었지만 부시간 또는 토지주와의 협의 난항 등으로 공사 전 단계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운동 주민 김모(61)씨는 "해마다 나운동 상가와 주택이 피해를 보는데 예산 탓만 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군산시의 자세가 문제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전북취재본부=박근식기자 nogusu@



### 군산 폭우 피해복구 한창

기록적인 폭우로 차량 50여대가 파손된 군산시 소룡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4일 소방대원 등이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기록적인 폭우로 차량 50여대가 파손된 군산시 소룡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4일 소방대원 등이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연필뉴스

### ■ 기록적 폭우 피해 군산은 지금...

## 주택·상가 1300여곳 침수 민·관·군 합동 복구 한창

444mm 물폭탄이 쏟아진 군산의 폭우 피해 규모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 비가 그치면서 복구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관계기관의 이재민 지원대책과 구호품도 담지하고 있다.

◇피해규모 얼마나=14일 전북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주택과 상가 1300여곳이 침수됐고, 차량 870여대가 파손됐다. 또 군산 산업단지 내 공장 10여곳도 침수 피해를 보았고, 농경지 5.67ha가 잠기고 닭 4만5000여마리가 폐사했다. 현재까지 이재민은 76세대 113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학교 피해도 늘어 8개 학교가 담장 붕괴와 교실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다. 전북외국어고의 지하 기계실이 침수됐고 담장 100여m가 무너졌으며 군산상고도 월명산에서 내려온 빗물이 넘쳐 특별교실이 물에 잠겼다.

군산동초교는 운동장에 고여 있던 빗물이 해수와 맞물려 분관 1층과 운동장이 침수됐고 미룡초교도 인근 산에서 토사가 밀려와 유치원 놀이장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복구작업 속도=전북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공무원과 소방관, 군·경 등 1500여명과 중장비 390여대를 투입해 복구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날 정전이 됐던 문화동과 나운동 지역의 아파트 1700세대 중 1000세대는 복구를 마쳤고 가장

피해가 컸던 군산시 소룡동과 산북동 아파트 두 곳은 매몰된 차량 37대에 대한 복구 작업을 완료했다. 전남 침수된 시가지 도로 10곳도 배수 작업을 마쳤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16일까지 응급 복구작업을 마칠 계획이지만 피해 규모가 생각보다 커서 완전히 복구하는 데는 이번 주말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민 지원 속속=전북도는 이재민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호품을 신속히 전달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 지방세 감면, 학자금 보조 등 분야별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김승수 정무부시사는 14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공무원들의 응급복구 지원 등 복구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절개지 등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확실한 예방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사람과 차량 통행을 완전히 차단하라고 강조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도 이날 폭우로 집이 침수된 이재민 120세대에 대해 응급구호품을 전달했다.

한편 군산 지역에는 13일 시간당 1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군산 산단에는 444mm, 군산 전 지역에는 기상관측 이래 네 번째로 많은 273mm의 비가 내렸다.

/전북취재본부=박근식기자 nogusu@

### 전주영화제 아이콘 '디지털 삼인삼색'

### 로카르노 감독상·여우주연상 휩쓸어

(재)전주국제영화제의 대표 아이콘인 '디지털삼인삼색'이 제 65회 스위스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과 여우주연상을 휩쓸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14일 전주국제영화제에 따르면 '디지털삼인삼색 2012' 중 중국 임량 감독의 '아직 할 말이 남았지만'이 지난 11일 폐막한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국제경쟁 부문에서 감독상을 차지했다. 또 이 영화의 여주인공인 나이안도 여우주연상을 거머쥐며 전주 국제영화제의 위상을 높였다.

이로써 '디지털삼인삼색'은 지난 2007년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은 이후 두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임량 감독은 "올해 디지털삼인삼색에 참여한 것은 즐거운 경험

이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중국의 현재와 주인공의 역올한 사연을 담아내려 노력했지만 얼마나 잘 반영됐는지 모르겠다"면서 "중국 정부의 압력에 또 날 지지해준 전주국제영화제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임량 감독의 '아직 할 말이 남았지만'은 중국정부의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전 세계 영화제에서 상영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제65회 스위스 로카르노 영화제에는 임량 감독 작품 외에 비록 터 자야순다라 감독의 '마지막 순간의 빛', 라야 마틴 감독의 '그레이트 시네마 파티'가 비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을 받았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남원시,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완공

### 헬스장·당구장 등 갖춰

남원시는 14일 이백면 서곡리 문화체육센터 부지에 조성한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및 인조잔디 축구장이 완공됐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장애인에게 체육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체력증진 향상을 위해 2009년부터 3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5만7875㎡ 부지에 체육공간을 조성했다.

장애인 체육시설은 헬스장, 당구·탁구장, 사무실, 휴게실 등을 갖추었다. 인조잔디 축구장의 완공으로 축구

동호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시장기 대회, 국민생활 전국축구 대회 등 다양한 경기를 갖게 됐다.

또 관내 축구동호인 대항전 등의 경기를 통한 체력향상과 건전한 취미 활동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남원시 교육체육과 강자청 담당은 "문화체육센터 내 장애인 종합체육 시설 등이 들어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전자훈련팀 유치 등 다양한 체육행사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